

#온실가스 감축 #클린에어… 이통3사, AI 기술로 환경 경영

SKT ‘에코제주 프로젝트’ 참여
KT ‘스마트 그린키친’ 도입
LGU+ AI 화재감지서비스 공인

SK텔레콤, KT, LG 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친환경 행보에 나서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바람이 거세자 온실가스 배출 등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통신사들이 ‘환경경영’에 시동을 걸고 있다. 특히 자신들 만의 AI 기술을 응용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AI 다회용컵 회수기로 환경소비 이끄는 SKT

SK텔레콤이 가장 빨리 움직이고 있다. ‘AI 컵페니’를 선언한 SK텔레콤은 ESG 위원회 설치에도 가장 먼저 앞장섰다.

최근엔 자사 AI 기술을 접목한 ‘에코제주’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에코제주 프로젝트는 오는 10월까지 제주스타벅스 매장에서 일회용컵을 다회용컵으로 전면 교체하는 프로젝트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스타벅스와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행복커넥트 등과 손을 잡았다.

고객이 음료 구매 시 보증금 1000원을 지불해 다회용컵을 대여한 다음, 컵을 반납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시스템이다. SK텔레콤이 개발한 AI 무인 다회용컵 회수가 그 역할을 수행한다.

‘비전 AI’ 기반 데이터를 적용한 회수가 정확히 인식해 컵을 수거하면



제주 관광객들이 제주국제공항 안에 설치된 AI 무인 다회용컵 반납기에 컵을 반납하고 있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가 개발한 AI 탑재 ‘환경관리로봇’이 전주시 일대를 자율주행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세척장으로 옮겨져 소독 등을 통해 다시 매장으로 돌아간다. AI 회수기가 환경소비 메커니즘의 첫 스타트를 끊는 셈이다.

온실가스 감축에도 발 벗고 나섰다. 지난해 11월부터 SK렌터카, 소프트베리와 함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및 배출권 확보를 위한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3G와 LTE 네트워크 장비를 통합·업그레이드해 기존 대비 전력 사용량을 약 53% 절감하기도 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서울시 포함 전국 78개시 자사 기지국과 중계기에 이 기술을 모두 적용해 지난해 말 환경부로부터 온실가스 저감에 따른 탄소배출권 1117톤을 인정받았다.

SK텔레콤은 기지국트래픽(데이터 전송량) 부하량 데이터를 AI로 모니터링하는 솔루션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KT, 공기 질 분석에 특화

KT는 ‘클린 에어’ 분야에서 보폭을

넓히고 있다. 지난 2일에는 미세먼지, 온도, 습도 등 공기 질 데이터를 네이버에 제공하기로 했다. KT는 2017년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학교, 병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시설 주위에 2200여 개 공기 질 측정 장비를 설치하고 관련 데이터를 축적했다.

네이버는 KT가 제공한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 실시간 위치를 기반으로 정확한 미세먼지 수치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양사는 이후에도 AI·빅데이터·클라우드 기반으로 환경 서비스 개발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유주방에 환경, 에너지 등 디지털 혁신(DX) 솔루션을 지원하는 ‘스마트 그린키친’도 도입했다. 서울 서대문구 종정로에 문을 연 배달형 공유주방 오키로키친에 DX 플랫폼 ‘스마트 그린키친’ 서비스를 지난 3월 시작했다. 통합관제, 공기 질 분석 솔루션으로 공기 질 유지, 유해물질 차단, 배달원 방역 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조리환경을 제공한다.

KT는 스마트 그린키친을 시작으로 환경, 방역, 안전 분야의 복합 관제 서비스를 다중이용시설, 프랜차이즈 스토랑, 신축 아파트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확산한다는 전략이다.

에너지 절감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KT는 지난해 1월부터 AI로 냉난방 설비를 조절해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로보오퍼레이터’를 KT광화문 이스트 사옥에 도입했다. LSE타워, 대전 세이브 존 등 6곳에서도 실증사업을 진행했다. KT는 지난해 실증사업을 진행한 빌딩에서 11.2%의 에너지 소비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환경사업을 담당하는 조직 이름에 AI DX가 붙어있을 정도로 KT가 진행하는 환경사업 전반에 AI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미세먼지 등 공기 질 데이터에 특화된 만큼 관련 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AI 입힌 드론·로봇 선보이는 LGU+

LG유플러스도 AI를 앞세운 친환경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지난 6월 U+ 스마트드론 기반 ‘AI 화재감지’ 서비스가 국제공인시험기관 ‘방재시험연구원’의 공인을 받았다.

U+스마트드론은 드론에 이동통신 및 원격제어 기능을 탑재해 비가시권 원격관제와 실시간 영상전송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정해진 경로로 비행하고 5G·LTE 통신이 가능해 제어 거리에 제한이 없다. ‘AI 화재감지’는 여기에 AI 영상 분석 엔진과 열화상 카메라가 더해진 임무형 드론 서비스다.

감시 지역 내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판별해 알림을 준다. AI 엔진은 화재 감지, 열화상 카메라의 온도 측정, 화재 지역 사진 촬영 및 전송 등을 빠르게 수행한다.

지난 2월엔 ‘환경관리로봇’을 전주시 일대에도 도입하기도 했다. 환경관리로봇은 AI를 탑재한 자율주행 로봇이다. 1km가량 코스를 자율주행하면서 실시간 대기정보를 수집하고 무인순찰 중 획득한 환경정보를 5G 네트워크로 빠르게 전달하고 분석한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등 물질을 수집한다.

스마트팜 사업도 뛰어들었다. 지난 해 7월 LG유플러스는 AI 기반 통합관제 플랫폼을 기반으로 LG CNS, 팜아이트와 ‘미래형 식물공장’ 사업을 추진해 왔다. AI로 원격으로 채소를 관리하고 식물공장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한다.

/김순복 수습기자 sunbok@metroseoul.co.kr

클라우드 시장 뛰어드는 SI기업… 선점 경쟁

삼성SDS, 영업이익 2171억 기록
 LG CNS, SK㈜C&C 등 사업 강화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공·금융 클라우드 시장에 삼성SDS, LG CNS, SK㈜C&C 등 주요 SI 기업들도 뛰어들고 있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이 계속 성장하는 가운데 이를 선점하려는 기업 간 경쟁이 불붙는 형국이다.

◆삼성 SDS, R&D·금융 클라우드 성과

삼성SDS는 올해 1분기 매출 3조 613억원, 영업이익 217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5.7%, 영업이익은 26.8% 증가했다. 금융 클라우드 전환 등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사업 확대에 따른 성과로 분석된다.

삼성SDS는 2분기에도 클라우드 사업 확대를 위해 연구개발(R&D) 클라우드, 금융 클라우드를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2022년부터는 공공 클라우드 사업에도 뛰어들 예정이다.

구형준 삼성SDS 클라우드 사업부장은 “클라우드 사업은 단기적으로 연구개발, 금융 분야 클라우드 사업을 집중 공략하고 내년에는 본격 진행될 공공 클라우드 사업을 착실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클라우드 기반의 블록체인 기술로 문서 위·변조를 적발할 수 있는

‘페이퍼리스’ 서비스를 출시했다. 삼성SDS는 이를 기반으로 클라우드에 기반을 둔 서비스형 블록체인(BaaS) 사업도 확대해갈 계획이다.

◆LG CNS, 클라우드 MSP에 집중

LG CNS는 올해 1분기 매출액 7545억원, 영업이익 544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8%, 영업이익은 123% 증가했다. 클라우드 사업과 금융권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주효했다.

LG CNS는 2023년까지 LG전자, LG화학, LG디스플레이 등 LG그룹 계열사 IT 시스템 90% 이상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또 금융·전자정부 개발 분야에서 키워온 개발역량을 바탕으로 MSP(클라우드 관리형 서비스 제공사) 분야에도 전하고 있다.

LG CNS의 클라우드 전략은 CSP(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MSP 분야를 강화하는 것이다. LG CNS는 일찍이 아마존웹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클라우드와 같은 해외 CSP 기업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해왔다. 또 국내 공공 클라우드 사업은 네이버클라우드, NHN과 같은 국내 CSP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종시 스마트시티 사업은 네이버클라우드와 손잡고 사업을 수주했다.

최근에는 클라우드 운영 서비스 ‘클

라우드엑스퍼프로필’을 출시하며 기존의 클라우드 MSP를 뛰어넘는 ‘더 뉴 MSP’ 사업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SK㈜C&C, 컨테이너 플랫폼 강점

SK㈜C&C는 올해 1분기 매출 4464억원, 영업이익 85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5.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1.0% 증가했다. 금융사의 디지털 금융 혁신사업 수주와 CSP를 중심으로 매출과 수익성이 개선됐다.

SK㈜C&C는 네이버클라우드와 손을 잡고 강력한 보안이 요구되는 공공과 금융 산업의 디지털 전환 사업에 힘을 싣고 있다. 네이버클라우드의 기술과 SK㈜C&C의 기술을 결합해 보안성을 강화하면서도 개발 활용성을 넓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컨테이너 플랫폼도 SK㈜C&C의 강점이다. 컨테이너 플랫폼이란 서로 다른 클라우드를 통해 서비스를 하더라도 수정사항이 한 번에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올해 초에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플랫폼과 솔루션을 통합한 디지털 플랫폼 ‘멀티버스’를 공개했다. SK㈜C&C는 멀티버스 기반 서비스 확대를 위해 구글클라우드 코리아, 네이버클라우드, 영림원, 두산 중공업 등 국내외 협력을 위해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디지털 솔루션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Junhyuk@



대한상공회의소가 12일 공개한 ‘국민소통 프로젝트’ 캡처.

“와닿는 얘기 많다” 최태원, 국민 소통 나서

〈대한상의 회장〉

국민소통 프로젝트 진행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회장이 국민과 소통을 통해 코로나 19 이후 경제·사회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기업의 올바른 미래 방향성 찾기에 나선다.

대한상의는 최근 기업의 ESG 경영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흐름에 맞춰 기업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기업인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 의견 수렴에 집중한다.

12일 대한상의가 운영하는 유튜브채널 인사이트에 올라온 ‘국민소통 프로젝트’ 홍보영상에는 최 회장이 회사원이나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일반 시민이 기업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 바램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 “상당히 기asmine에 와닿고 찔리는 얘기가 많다”고 입을 열

었다. 이날 영상메시지는 “고생하는 사람 따로 돈벼는 사람 따로 있는 것 같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까 진정성이 없는 것 같다”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건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로 보인다” “보여주기식 퍼포먼스를 안 했으면 좋겠다” “말 만하지 말고 실천해줬으면 좋겠다” 등의 이야기를 내놨다.

최 회장은 “기업들이 앞으로 사회에 많은 기여와 공헌을 할 수 있도록 바른 기업의 역할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8월 말까지 진행될 이번 국민소통 프로젝트를 통해 모아진 기업인과 국민의 목소리는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담은 보고서로 발표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